④ 文殊寺址라고 傳하는 相當한 넓이의 절터가 있어서 現在도 數個의 礎石과 碑石一座가 있고 石築이 殘存한다고 하나 調査當時 暴雨로 이곳 踏査는 中斷하였다。

資料

法泉寺址石造光背

秦 弘 燮

原城郡敎育廳의 申告에 依하여 지난 七月 現地에서 調査한 바 있는 이 光背는 法泉寺址의 一角에 傳하는 智光國師의 塔碑殿址에서 南方 約四〇〇 *m* 나지막한 稜線너머에 位置한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二區 六五九番地 이창호氏宅에서 發見되었다。이 家屋은 一九六七年 四月 二十五日에 立柱上樑하였는바 부엌 바닥을 고루다가 地表下 約 一尺 밑에서 엎허진 狀態로 發見되었다고 한다。다른 遺物은 없었고 이 光背에 달린 佛像도 發見되지 않았다고 한다。



圖拓本背光造石址寺泉法

이 光背는 寶珠形으로 全高 一四八 *cm* 幅 一一一 *cm* 厚約 二五 *cm* 로 完形으로 남아 있다。밑에는 六六。五 *cm* × 一四 *cm* × 二〇 *cm* 의 長方形의 축이 달려서 아마 佛像臺座에 끼워서 세웠던 것으로 推測된다。裏面의 狀態는 確認하지 못하였으나 表面에는 全面에 彫飾이 加해지고 있다。中央에 隆起線 二條로 圓形을 그리고 (徑六八 *cm*) 그 안에 徑三四。五 *cm* 의 圓形 凸部가 있어 子房을 表示했을 뿐 다른 彫刻은 없다。이 圓圈은 頭光임이 틀림 없고 그 밑 左右에 蓮이 있는 草花形이 彫刻되어 外緣部와 區分하였으니 아마 身光을 表示한 듯하며 頭光 下部 즉 身光에 該當하는 部分에는 彫刻이 없다。外緣部에는 火焰이 陽刻되었고 그 사이에 五軀의 化佛이 있다。이 化佛들은 特色을 보이고 있으니 頂上의 化佛은 頭身 兩光을 갖추었고 飛雲臺上에 結跏趺한 坐像으로 降魔觸地의 手印을 한 如來像이다。바로 밑에 左右로 있는 化佛二軀는 亦頭身 兩光을 갖추었고 臺座는 明確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左足은 跏趺座를 풀고 무릎밑에 내려 놓았고 손은 合掌하여 姿勢가 모두 若干 안을 向하고 있다。다음 兩軀는 頭光中心에서 若干 밑으로 左右에 있는바 姿勢는 大體로 바로 위의 化佛과 같으나 光背가 省略된 듯 하고 飛雲 위에 앉아 天衣를 날리고 있다。이러한 形態를 볼 때 頂上에는 如來像을 그 밑에는 菩薩像을 다시 밑으로 飛天像을 配置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佛像의 크기는 頂上이 高 二二 *cm* 膝幅 九 *cm* 下端이 高 一二〇 *cm* 膝幅 一〇 *cm* 인바 이와 같은 配置는 보기드문 特異한 樣式이라 하겠다。

이 光背는 크기、頭光의 位置、밑의 촉 等과 關聯시켜 볼 때 坐像의 光背가 아니었던가 推定된다。表面에 全面的인 磨損이 있기는 하나 彫刻手法은 優秀한 便으로 名刹 法泉寺에 있음직한 優作이다。造成年代는 高麗 初期로 推定되었다。

唐津 安國寺址 出土 金銅如來立像

李 殷 昌

浮石寺 住持 任啓福氏는 金銅佛立像 二軀를 所藏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瑞山郡 浮石面 江堂里 出土 金銅佛立像이고 또 하나는 이곳에 紹介